2024. 4. 19.(금) 석간용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19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담당 부서 :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

도시철도과장	안형준	2133-4331
도시철도운영팀장	곽동훈	2133-4340
담당자	유경아	2133-4350
자치경찰협력과장	김병주	2133-9831
자치경찰협력팀장	김영준	2133-9832
담당자	구혜림	2133-9833

사진 없음 □ 사진 있음 ▣ 매수 : 4매

서울시, 지하철 범죄 예방·근절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 강화

- 지하철경찰대와 지하철보안관 합동순찰 시행…범죄 다발 11개 역사 집중순찰
- 유흥가 밀집지역 등 범죄노출 우려지역 역사…경찰 지구대·파출소 순찰 강화
- 112로 지하철 범죄 신고 시,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관제센터에 신속 전파
- 지하철 역사 내 범죄취약장소 112 비상벨 증설… 신속한 초동대응 기대

□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3월 28일(목) ’24년도 제1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.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사건·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.

□ 서울 지하철은 하루평균 70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 인프라로, 지난 한 해(’23년)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‘묻지마

범죄’와 ‘살인 협박’ 등 무차별 범죄 예고가 다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이다.

□ 이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하철 내 범죄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.

□ 우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와 함께 합동 순찰을 시행해 범죄예방과 질서 위반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. 아울러 설·추석 명절 등 특별 단속기간에는 추가 합동 순찰로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.

○ 일 2회(07:30~08:30/18:00~19:00) 범죄 발생 상위 11개 역을 대상으로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과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이 한 조를 이루어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.

※ 범죄 발생 상위 11개 역사 : 서울역, 교대역, 신도림역,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, 종로3가역, 노원역, 사당역, 합정역, 건대입구역, 고속터미널역, 잠실역

□ 또한, 생활권 지하철 범죄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유흥가 밀집지역 등 범죄 노출 우려되는 지하철 역사 공간에 대해서 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.

□ 서울경찰청은 112 긴급번호로 신고·접수되는 지하철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제센터로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

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했다.

○ 움직이는 지하철 특성상 112 긴급번호로 신고·접수된 사건이 관할 지구대로 통보되어 해당 역사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범죄 신고된 열차가 해당 역사를 떠나고 없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.

□ 서울경찰청은 현재 서울교통공사 1~8호선, 서울지하철 9호선, 우이신설선, 신림선 등 4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관제센터 직통번호를 '112치안종합상황실'에 등록해 중요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.

○ 아울러 서울 구간 코레일, 신분당선 등 국가철도 운영기관의 관제센터 번호도 추가로 등록하여 112 신고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.

□ 이를 통해 범죄 발생 열차에 대한 통제가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, 역무직원 또는 지하철보안관이 보다 빠르게 현장에 출동해 범죄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이 가능해지는 등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범죄 억제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.

□ 한편, 서울시(서울교통공사)는 '24년 6월 말까지 지하철 역사 내 여자화장실 등 범죄취약장소 590개소를 선정해 비상시 경찰에 직접 신고가 가능한 '112 비상벨'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.

□ 시는 비상벨 설치가 완료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각종 사건·사고에 노출됐을 경우, 신속하고 편리하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“서울 지하철 내 범죄 예방 및 사건·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벨 등 시설 개선과 더불어 서울경찰청과 공조하여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 임 **참고사진**